

GWANGJU

FOOTBALL CLUB

May, June 2014 / NO. 03

MONTHLY MAGAZINE

www.GWANGJUFC.com



NEWS

광주 FC를 만들어가는 O.P(OUR PRIDE)
팬들이 선수들의 라커룸을 꾸민 사연은?
5, 6월 광주 FC의 상대팀은 누구?
광주 FC에 안착한 수비수 박진욱!

INTERVIEW

프로 15년차, 200경기 출전한 골키퍼 백민철
“몸이 허락할 때까지 선수생활 하고 싶어!”

Next Home Match



광주 FC vs 대전 시티즌

05월 18일(일) 14:00



광주 FC vs 강원 FC

06월 08일(일) 19:00



광주 FC vs 대구 FC

06월 30일(월) 19:00



Hyundai Oilbank K LEAGUE CHALLENGE

※ 이 책자는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지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 FC를 이끄는 힘! 대학생 운영단 O.P(Our Pride)를 소개합니다.

2014년 시즌 시작과 함께 첫 선을 보인 광주 FC 대학생 운영단 O.P는 현재 경기 운영팀과 미디어팀 두 팀으로 나누어져 운영되고 있다. 대학생으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신선한 아이디어와 가득한 열정을 바탕으로 광주의 뒤를 묵묵히 지키며 서포터하고 있다.

경기 운영팀

기업에서 그 기업을 홍보하기 위해 행사를 개최하듯이 광주 OP 운영기획팀에서는 홍보도 하고 입장한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매 경기마다 작지만 알찬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매 경기마다 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남문에서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선수들(100경기 출전, 생일 혹은 입단1주년 등등)의 사진전도 개최하고 입장시 팬들이 직접 작성한 응원 메세지를 모아 선수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다가오는 이번 달 말쯤에는 광주지역에 소재한 조선대학교에 '캠퍼스 어택'을 갈 계획이다.

미디어팀

미디어팀은 사진 기자 2명, 취재기자 4명으로 구성되어 광주의 소식을 보다 빠르고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다. 매 라운드마다 프리뷰, 리뷰뿐만 아니라 새롭게 구성될 예정인 OP가 뽑은 이달의 수훈선수, OP 라디오 스타 등의 기획을 준비 중이며 팬들에게 다채로운 미디어 정보를 제공 해드리기 위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다. 선수들의 경기 사진 뿐 아니라, 경기장 구석구석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의 사진 역시 제공하여 더욱 더 다양한 소식을 제공하고 있다.

광주 FC를 만들어가는 O.P(OUR PRIDE)



OP 경기운영팀 최성준 팀장(26)

Q. OP 경기운영팀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총 7명이 소속되어 있어요. 보통 2주전에 회의를 거쳐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해요. 어떤 선수가 100경기에 출전한다고 하면 경기장을 찾은 팬들에게 선수에 대한 메시지를 부탁하죠. 그걸 모아 선수한테 주고, 사진전도 입구에 열고 있어요.

Q. 경기를 보는 관점도 달라지셨을 것 같아요. 과거엔 한 명의 팬으로서 볼 때는 모든 선수의 번호나 이름까지 외우지 못했는데, 이제는 저절로 외워지고 어떤 선수가 어떤 성격인지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더라고요.

Q. 앞으로의 방향을 설명해주세요. 5월달 안에 광주에 있는 대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퀴즈나 이벤트를 통해 구단을 홍보하려고 계획 중이에요.

Q. OP 미디어팀에 지원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시나요? 여러 대외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호남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광주도 다른 구단처럼 대학생 운영단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죠. 제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구단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 지원하게 됐어요.

Q. 홈 경기 당일에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경기장에 일찍 도착해 구단이 경기 운영을 하는 부분이나 이벤트에 도움을 주고 있어요. 이벤트 하는 곳에 관중들의 반응을 살피고, 시즌권 좌석으로 가 팬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평소에 볼 수 없었던 부분을 보려고 하고 있죠.

Q. 앞으로의 방향을 설명해주세요. 저희가 아직 시작하는 단계라 미흡한 점이 많지만 광주 선수들과 팬 사이의 소통의 역할을 해야죠. 예를 들어 선수 인터뷰를 하게 되면 SNS를 통해 팬들이 가장 궁금한 질문들을 미리 받아 전달해주면서 함께 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야죠.



OP 미디어팀 김진희 팀장(24)

팬들이 광주 선수들의 라커룸을 꾸민 사연은?

팬들이 선수단 라커룸을 꾸민다? 라커룸은 선수들이 경기 전과 후 가장 오래 머무르는 곳이다.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팬들의 궁금증이 가장 극대화되는 장소이자 베일에 쌓여 있는 금단의 구역이다. 이 금단의 구역 라커룸에 광주 팬들의 손길이 닿았다. 광주 팬들은 매 홈경기가 열리는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선수들 라커룸을 화사하게 꾸몄다. 칙칙하던 라커룸은 화사한 분위기를 내며 선수들이 라커룸에서도 팬들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변모했다. 이 프로젝트는 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의미를 더했다. 이번 일을 기획한 광주 팬이자 사진기자인 서영창씨는 “라커룸은 팬들이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공간이고 대부분 딱딱한 분위기잖아요. 훈훈한 분위기를 만들고 싶어 구단과 협의 하에 라커룸을 꾸미게 됐어요”라며 계기를 설명해

주었다. 서영창씨를 비롯한 2~3명의 팬들은 자신의 생업이 끝난 뒤 선수단 개인 라커룸 위에 붙여질 이름표와 사진 등 여러 작품들을 손수 만들었다. 새벽까지 밤잠을 설쳐가며 힘들 법도 했지만 서영창씨의 목소리는 오히려 더 밝았다. 서영창씨는 “솔직히 힘든 점은 없어요. 우리 팀이 좋고,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어서 오히려 즐거워요. 업체에 맡겨 제작할 수도 있었지만 직접 디자인하고 꾸미니까 기분이 남달랐어요. 선수들도 광주에서는 원래 이런 것들도 해주는 것이냐고 되묻기도 했어요(웃음)”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광주 팬들의 프로젝트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팬들과 선수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프로젝트로 함께 웃고 즐길 준비를 하고 있다.



5, 6월 광주 FC의 상대팀은 누구?

K리그는 3월에 개막해 약 9개월 간의 긴 리그 일정을 소화한다. 시즌 초반에는 쌀쌀한 날씨 속에서 경기가 치러지기 때문에 선수들은 먼저 예상치 못한 부상과의 싸움을 벌인다. 완벽한 조직력 맞추기에도 힘을 쓰는데, 선수들은 경기 감각을 끌어 올리며 자신의 몸 상태를 최상으로 올려 놓는다. 기초 공사가 끝나면 각 구단들은 본격적인 우승 경쟁 레이스에 도입하게 된다. 중요한 점은 모든 팀들이 몸이 풀리기 시작하는 여름이 되기 전, 우승 경쟁에 도전할 수 있는 순위로 끌어 올리는 것이다. 그 시기가 바로

5월, 6월인 지금이다. 이 때 광주는 10라운드부터 16라운드까지 총 7차례의 경기를 펼친다. 올 시즌 이미 한 차례씩 경기를 치른 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전력 파악은 끝난 상태이다.

본격적인 순위 싸움은 지금부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에 광주의 경기 일정과 상대팀 분석을 진행했다. 과연 광주는 여름이 오기 전 우승 경쟁에 불을 지퍼놓을 수 있을까?

10R

광주월드컵경기장

HOME



GWANGJU
FOOTBALL CLUB

VS
05.18 (일)
14:00



DAEJEON
CITIZEN FC

상대팀 분석

지난 시즌 클래식에서 강등된 대전 시티즌이 막강 화력을 뽐내고 있다. 공수에서 안정된 전력을 보이고 있고, 조진호 감독 특유의 용병술과 전략이 대전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챌린지의 강패라고 불릴 정도로 단숨에 우승후보로 떠올랐다. 원동력은 신인 서명원의 등장과 외국인 공격수 아드리아노의 득점력이다.

통산 전적

1승

2무

4패

11R

부천종합운동장

AWAY



BUCHEON
FOOTBALL CLUB

VS
05.25 (일)
19:00



GWANGJU
FOOTBALL CLUB

상대팀 분석

최진한 감독이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부천 FC는 고난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 초반 6경기에서 1무 5패라는 저조한 성적을 내며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전체적인 팀 연령이 낮아 경험이 부족한 것이 큰 약점이다. 다만, 노련한 최진한 감독의 지도를 받는 부천 선수들이기에 방심해서는 안 된다.

통산 전적

4승

1무

1패

12R

충주종합운동장

AWAY



CHUNGJU
HUMMEL FC

VS
06.01 (일)
19:00



GWANGJU
FOOTBALL CLUB

상대팀 분석

지난해 챌린지 최하위를 기록한 충주 험멜은 주전 공격수 정성민과의 계약을 연장하며 공격력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중원에서 변용의 합류로 무게감을 실었다. 하지만 불안한 수비라인이 가장 큰 문제이다. 수비 조직력이 갖춰지지 않았고, 지나친 공격으로 강력한 역습 한 방을 맞고 무너진 경기가 많았다. 광주는 이 점을 노려야 한다.

통산 전적

3승

2무

1패

13R

광주월드컵경기장

HOME

GWANGJU
FOOTBALL CLUB

VS

06.08 (일)
19:00

GANGWON
FOOTBALL CLUB

상대팀 분석

강원 FC는 챌린지에서 유일한 외국인 감독인 알툴 감독을 보유하고 있다. 시즌 초반 흔들리는가 싶더니 경기를 거듭할수록 조직력이 살아나며 끈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진호-조엘손-김동기가 이끄는 공격 삼각편대가 상대 수비수들을 휘젓고 있고 유기적인 위치 변화로 전술적 짜임새를 갖추고 있다.

통산 전적

2승

3무

3패

14R

안양종합운동장

AWAY

FOOTBALL CLUB
ANYANG

VS

06.14 (토)
14:00

GWANGJU
FOOTBALL CLUB

상대팀 분석

올 시즌을 앞두고 FC 안양은 최진수의 완전 영입과 바그너, 펠리피 브라질 듀오를 합류시키며 다크호스로 분류됐다. 시즌 초반 탄탄한 수비벽을 형성하며 3연승으로 깜짝 선두를 달렸지만 이후 들쭉날쭉한 경기력으로 선두 자리를 반납했다. 한편, 안양은 올 시즌 광주와 한 차례 맞대결을 벌여 패배를 기록한 바 있다.

통산 전적

3승

2무

1패

15R

수원월드컵경기장

AWAY

SUWON
FOOTBALL CLUB

VS

06.22 (일)
19:00

GWANGJU
FOOTBALL CLUB

상대팀 분석

수원 FC는 공격 축구를 펼치는 팀이다. 김한원, 박종찬, 김보광이 이끄는 기존 선수들과 함께 정민우, 김정빈 등 젊은 선수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며 '돌격 앞으로'를 외치고 있다. 전체적인 공격 속도가 빠르고 조덕제 감독의 용병술은 뒷심 강한 수원을 만들고 있다. 다만, 포백라인 변화가 심해 안정감이 떨어지는 것이 약점이다.

통산 전적

3승

0무

3패

16R

광주월드컵경기장

HOME

GWANGJU
FOOTBALL CLUB

VS

06.30 (월)
19:00

DAEGU
FOOTBALL CLUB

상대팀 분석

대구 FC는 올 시즌 챌린지로 내려오며 최덕주 감독 체제로 전환했다. 황일수, 이진호 등 주축 선수들이 팀을 떠났지만 황순민을 중심으로 장백규, 금교진, 신창무 등 신인 선수들이 주전 자리를 꿰차며 팀 컬러를 젊음으로 내세웠다. 여기에 베테랑 공격수 노병준과 외국인 공격수 조나탄, 마테우스가 합류하며 탄탄한 전력을 갖추고 있다.

통산 전적

2승

3무

2패



200경기 출전! 백민철, “몸이 허락할 때까지 선수생활”

백민철 No.21

1977.07.28 / 185cm, 80kg GK (골키퍼)

동대부속고, 동국대, 안양LG, 광주상무, FC서울, 대구FC, 경남FC

K리그 통산 - 200경기 316실점 / 2014시즌 - 5경기 5실점

Q. 어느덧 프로 14년째 해를 보내고 있어요. 올해는 더 특별한 시즌을 맞이하는 것 같아요. 신인 때나 지금이나 매년 새로운 것 같아요. 축구가 알면 알수록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려워요. 신인 때는 운이 좋게 우승을 경험해봤고, 작년에는 강등권 탈출을 위해 싸웠잖아요. 해가 지나면서 계속 새로운 느낌이에요.

Q. 현재 K리그 통산 199경기를 소화하셨는데, 이제 200경기 출전을 눈 앞에 두고 있어요. 연차로 보면 아직 200경기 밖에 안됐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데뷔했을 때는 100경기만 뛰고 은퇴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한 해 두 해 지나다 보니까 200경기를 앞두고 있네요. 정말 감회가 새로워요. 특별한 경기인 만큼 기분 좋고 뜻 깊은 승리를 거두고 싶어요.(웃음)

Q. 대기록을 앞두고 가장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식구들이 가장 먼저 생각나죠. 가족들의 응원에 제가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아직 아이들이 어려워요. 제가 맨날 원정경기나 해외 전지훈련을 가면 아빠의 빈 자리가 클 텐데, 와이프가 잘 해주고 있어요.

Q. 이 자리를 빌어 와이프에게 한 마디 해주세요 와이프가 항상 서울에만 살던 사람인데, 저한테 시집 온 이후로 서울에 산 적이 없어요. 지방을 돌아다니고 있지만 옆에서 아이들을 잘 키워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웃음)

Q. 치렀던 경기들 중 백민철 선수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나요? 데뷔전과 작년에 이슈가 됐던 경기가 생각 나네요. 데뷔전은 광주상무 소속으로 치렀어요. 당시 상대팀이 남기일 감독님께서 계시던 부천이었거든요. 남기일 감독님한테 한 골을 먹혔어요. 제 첫 실점이었죠. 다행히 2-1로 이

겨 첫 승을 올렸죠. 그리고 작년 전 소속팀 대구와의 경기에서 2차례 페널티킥을 모두 선방한 것이 기억에 남아요. 팀이 힘든 상황에서 승리의 원동력이 되어 좋았어요.

Q. 2000년 안양LG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했지만 데뷔전을 갖지 못했어요. 이 때 힘든 시기를 보내셨을 것 같아요. 변명일지 모르겠지만 당시 국내 무대에 한 획을 그은 선수가 있었어요. 바로 신의손 선수였죠. 경기를 뛰지 못해 힘든 시기였지만 제겐 값진 시간이었어요. 전지훈련 중 룸메이트였거든요. 자기관리가 철저한 선수였어요. 그런 면을 잘 배운 것이 제 선수생활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요.

Q. 이후 2003년 광주상무로 입대하셨어요. 이때 광주와의 인연이 생기셨어요. 일단 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고 싶었죠. 그런데 제가 1군 무대에 출전하는 선수도 아니었고, 상무라는 벽은 높았어요. 다행히 상무에 입대하게 됐고 형들 밑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그리고 팀의 프로 데뷔 첫 승을 제가 기록하게 되어 뜻 깊었죠. 그 승리가 제 데뷔전 첫 승리이기도 했거든요. 정말 기뻐했고 많은 자신감을 찾은 계기였어요. 이후 1군 경기에는 많이 뛰지 못했지만 경기를 치렀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느꼈어요. 제대를 한 뒤, 원소속팀으로 복귀했는데 어깨를 다쳐 수술을 하게 되어 반년을 쉬었어요. 상무에서 자신감을 찾고 이제 잘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상황에서 부상을 당해 가장 힘든 시기였죠. 그래도 저를 잘 봐주신 선생님들이 있으셔서 대구로 이적하게 됐어요.

Q. 백민철 선수가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시점이 6년 동안 이어진 대구에서의 활약이었어요. 대구로 이적하면서 주전 경쟁에 대한 자신감은 있었어요. 경쟁자들이 뛰어나 주전 자리가 힘들어

이라 생각하던 찰나에 다른 선수들이 부상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출전 기회를 잡게 됐죠. 또, 제가 출전한 뒤 팀 성적이 좋아져서 꾸준히 출전할 수 있었어요. 풀 시즌을 2차례 뛰었고 시상식에서도 상을 2번 받았어요.(웃음)

Q. 올해 챌린지에서 대구와 한 차례 만났는데, 출전하지 못하셨어요. 앞으로 대구와의 맞대결이 기다려지실 것 같아요. 아쉬웠어요. 감독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지만 고참 선수들이 첫 단추를 잘 꿰주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해 죄송스러웠죠. 아직 경기는 많이 남아있으니까 다시 재정비한 뒤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대구와는 작년에 2차례 경기를 했어요. 한 골도 허용하지 않았으니까 올해도 그 징크스를 이어가야죠.

Q. 올해 광주에 합류한 결정적 요인이 있으신가요? 저도 우승을 바라보는 팀에서 우승을 해보고 싶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광주에 합류한 경험 많은 선수들이 제가 알던 선수들이 많아요. 이 선수들과 힘을 모으면 뭔가 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여러모로 모든 것이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젊은 감독님 밑에서 좋은 성적으로 선수들과 함께 우승해보고 싶어 선택하게 됐어요.

Q. 앞으로의 목표가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지도자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 지도자들을 겪으면서 매력을 느꼈어요. 그래서 2년 전부터 2급 코스까지 지도자 자격증을 땀어요. 그래도 제 몸이 허락되는 한 선수생활을 계속 하고 싶어요. 욕심일지는 모르겠지만 축구 하는 것이 좋아요. 지도자 생활을 하게 되면 좋은 선수를 가르쳐 보고, 길러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웃음)

광주의 오른쪽은 내가 책임진다! 광주에 안착한 수비수 박진옥!

올 시즌 광주 FC는 대대적인 선수단 개편으로 경험이 풍부한 선수들을 영입했다. 그 중 눈에 띄는 선수는 국가대표팀을 경험했던 이종민이었다. 이종민은 오른쪽 측면 수비수뿐만 아니라 오른쪽 미드필더 혹은 공격수까지 소화할 수 있는 멀티 능력을 겸비하고 있다. 동계훈련부터 주전 입지를 구축한 이종민은 시즌이 개막하자 오른쪽 수비수 자리를 차지했다. 하지만 4라운드 대전 시티즌과의 경기에서 부상을 당하며 전력에서 제외됐다. 그의 공백은 광주에 큰 타격이었다. 하지만 광주는 이종민의 공백을 깔끔히 메웠다. 박진옥이 기회를 잡고 자신의 입지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올해 광주에 입단한 박진옥은 프로 경력 10년째 해를 맞는 베테랑 수비수이다. 올 시즌 초반 이종민과의 주전 경쟁에서 밀리며 기회를 잡지 못했지만, 5라운드 FC 안양과의 경기부터 출전하기 시작했다. 박진옥은 오른쪽 측면에서 젊은 선수 못지 않은 왕성한 활동량으로 중형무진 그라운드를 누볐다. 상대 진영까지 침투하는 적극적인 오버래핑과 날카로운 크로스로 광주 공격에 힘을 실었다. 특히 박진옥의 노련미가 돋보였다. 상대 공격을 예측하며 공격수의 진행 경로를 차단했고, 공중볼 상황에서 체격은 작지만 탁월한 위치선정으로 정확한 클리어링을 보여주었다.

5라운드 안양전, 6라운드 안산 경찰청전, 7라운드 고양 Hi FC전 모두 풀

타임 출전한 박진옥은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도 인정한 베스트 선수였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매 라운드 경기를 치른 뒤 선수들의 활약을 집계해 위클리 베스트 11을 선정한다. 박진옥은 5라운드부터 7라운드까지 3주 연속 위클리 베스트 11 오른쪽 수비수 자리를 차지하는 기쁨을 맛봤다. 박진옥의 활약에 남기일 감독대행은 “이종민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박진옥 선수가 기회를 잡았는데, 경험이 많고 후배들을 잘 이끌어 주고 있어 제 역할을 해내고 있다”며 엄지 손가락을 치켜 올렸다.

남기일 감독대행은 수비부터 시작되는 공격 빌드업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공격수들은 적극적인 수비가담으로 상대 공격을 차단하고 수비수들도 공격에 가담하여 상대 수비를 공략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박진옥은 팀 빌드업 중심에 섰다. 오른쪽 측면에서 상대 진영 깊은 곳에 침투해 공을 이어받으며 수비수들을 바깥으로 끌어냈다. 이어, 김민수 혹은 김호남과 짧은 이대일 패스를 주고 받는 등 뒷 공간 침투로 공격에 활기를 불어 넣었다.

박진옥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10년 간의 프로 경험을 살려 광주에 안착했다. 많은 공격포인트를 기록하지는 못하지만 묵묵히 자신의 위치에서 팀을 위해 희생하는 정신은 그가 어떻게 프로 무대에서 180경기 이상을 소화해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박진옥 No.19 / 1982.05.28 / 170cm, 66kg DF (수비수)


출신 - 영덕중고, 경희대, 제주유나이티드, 광주상무, 대전 시티즌


K리그 통산 - 189경기 2득점 1도움 / 2014시즌 - 5경기

2014시즌 광주 FC 선수 명단

								
남기일 감독대행	김영철 수석코치	카를로스 피지컬코치	알베스 GK 코치	주치의 이준영	GK 제종현	GK 백민철	GK 류원우	DF 정준연
								
DF 전준형	DF 최성환	DF 이완	DF 마철준	DF 김영빈	DF 이종민	DF 박진욱	DF 박병주	DF 오도현
								
DF 정호청	MF 여름	MF 김민수	MF 김유성	MF 김구철	MF 송한복	MF 권수현	MF 송승민	MF 홍태곤
							그리고 광주FC를 응원하는 여러분이 바로 12번째 선수입니다!	
MF 이찬동	FW 임선영	FW 호마령요	FW 파비오	FW 김호남	FW 안종훈	FW 이진호		


2014시즌 홈 경기 일정


06월 08일(일) 19:00  VS 강원 FC

06월 30일(월) 19:00  VS 대구 FC

07월 19일(토) 19:00  VS 수원 FC

07월 27일(일) 19:00  VS 부천 FC

08월 16일(토) 19:00  VS 충주 험멜

08월 31일(일) 19:00  VS 강원 FC

09월 06일(토) 19:00  VS 안산 경찰청

09월 13일(토) 19:00  VS 고양 Hi FC

09월 28일(일) 14:00  VS FC 안양

10월 11일(토) 14:00  VS 대구 FC

10월 25일(토) 14:00  VS 대전 시티즌

광주 FC 많이
응원해 주세요!



광주FC 홈페이지
www.gwangjufc.com



광주FC 트위터
@GWANGJU_FC



광주FC 페이스북
/gwangjufc

해운대 호텔로시 **광주** KJB  광주은행  Hyundai Oilbank  중흥S-클래스

 일원의원 청연의료재단  광주광역시교육청  조선대학교병원  고천류 지리산산상  비타민하우스

 광주패밀리랜드  중흥 골드스파&리조트  사랑방신문  Joma  밝은안과21  KSPO  국민체육진흥공단

 남원생명과학  그램이  광주수안병원  CMB 광주방송  에스탑 치과의원  농심  윤암한방병원  황솔촌

발행일 2014년 05월 18일 / 발행처 (주)광주시민프로축구단 -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 240 (동암동) 광주월드컵경기장 2층
전화 (062)373-7733 / 홈페이지 http://www.gwangjufc.com / 기사 더스포츠 허회원 기자 / 디자인 더스포츠(www.thesports.co)
* 이 책자에 게재된 글, 사진, 도표 등 모든 기사의 판권은 본사가 소유하며 발행인의 허가 없이는 그 내용을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할 수 없습니다.